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가사내용 분석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 심 근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가사내용 분석 연구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 심 근

인 준 서

홍심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해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이슈와 그 내용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자폐증) 1-3급의 형제가 있는 청년기 비장애인이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은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연관지어 직접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방식으로, 2020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50분씩 주 1회, 총 9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이들이 만든 19개의 곡 가사 내용이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절차는 Baker와 Wigram(2006)의 모델을 수정·보완하여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노래 가사 내용은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19곡으로부터 5개의 주제와 32개의 코드, 178개의 단어 및 문장으로 이루어진 가사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관계 역동’, ‘자아’, ‘형제와 나’로 분류하였다. ‘긍정적 감정’은 장애인 형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희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적 감정’은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경험한 사건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 역동’은 장애인 형제 외에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과의 관계 및 갈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아’는 장애인 형제와 관련된 자신의 내면적 갈등 및 심리 상태를 나타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나’는 오로지 장애인 형제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가사 내용의 분석결과,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관한 표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형제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가사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타인과의

관계 역동, 긍정적인 감정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이중에서도 미래에 있을 장애인 형제와의 생활 및 관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와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책임감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가사 내용분석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1.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8
1) 형제자매의 개념	8
2) 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특성	9
2. 치료적 노래 만들기	11
1) 노래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11
2) 치료에서의 창조적 활동	13
3)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에서의 선행연구	15
III. 연구방법	17
1. 연구 참여자	17
2. 연구 설계	17
3. 연구 절차	18
4. 음악치료 프로그램	19
5. 자료 분석	21
IV. 결과	22

V. 결론 및 제언	33
1. 결론	33
2. 제언	3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Ⅲ-1> 연구 참여자 정보	17
<표Ⅲ-2> 연구 절차	17
<표Ⅲ-3> 음악치료 프로그램	19
<표Ⅳ-1> 주제별 분류 코드	22
<표Ⅳ-2> 주제별 분류	24
<표Ⅳ-3> 주제/테마 분류	24

그림 목 차

<그림 IV-1> 주제별 분포도	26
<그림 IV-2> ‘부정적 감정’의 하위 분포도	30
<그림 IV-3> ‘관계 역동’의 하위 분포도	30
<그림 IV-4> ‘자아’의 하위 분포도	31
<그림 IV-5> ‘형제와 나’의 하위 분포도	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2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 동생과 그의 형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장애인인 동생을 보살피는 게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연합뉴스, 2012.02.02.). 비슷한 사례로, 2016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형에 대한 부양문제로 다른 형제와 다투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연합뉴스, 2016.09.05.). 최근 대전광역시에서는 17년간 간병해온 장애인 형을 목 졸라 살해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신문, 2020.09.09.). 이러한 사건들은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 비극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엄진명과 전해인(2014)에 따르면,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인 형제를 ‘소중한 존재’이지만 ‘감추고 싶은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가슴 아픈 존재’로 인식한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이러한 인식 저변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장애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강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갖는 부담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미래에 부모 없이 단둘이 남겨질 상황에 대한 걱정이다(장미희, 최영, 2011). 부모가 더 이상 장애인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때 그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막막함과 책임감이 클수록 장애인 형제를 ‘짐’이면서 ‘두려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장미희, 최영, 2011; 정보경, 윤명숙, 2013; 최복천, 김유리, 2015).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 뿐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재령(2011)에 따르면,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인 형제와의 삶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아동기에는 위축

된 행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Alper, Schloss, & Scholoss, 1994; 이영미, 2015). 학령기에 접어 들면 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형제의 장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Murphy, 1979). 무엇보다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장애인 형제에 대해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죄책감과 형제를 돌보기 위해 또래 친구들만큼 여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데서 오는 소외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부모나 또래 친구에게 드러내기가 어렵다(Strom, 2005). 청년기와 성인기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이 장애인 형제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것과 태어나게 될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령, 2011). 부모의 노화나 죽음으로 인해 장애인 형제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 있다(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과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 통념 속에서 장애인들은 시설 및 병원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인은 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지원으로는 임신기,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 장애인의 전생애에 따른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지원, 장애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인 연금 등이 있다(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0). 심리적 지원은 위기 장애

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동료 상담사 양성 및 파견, 긴급 돌봄 지원, 치료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이용해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클럽,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강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0).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돌봄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전국 총 72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16군데로 현저히 낮은 지원 현황을 보이고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야외활동, 놀이 활동, 캠프, 현장학습 등의 신체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캠프와 같은 야외활동은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내면의 심리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김은실, 이미경, 2006).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일생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권희연 등, 2010; 이진화, 김윤주, 2014; 이영미, 2016; 김유리, 2018; 노민희, 김은경, 2018).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게 되면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송정애, 2010).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부모의 부재시 겪어야 할 장애인 형제에 대한 돌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관련된 연구는 특수교육·상담심리분야가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령 혼

합,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뒤를 이었고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었다(이경순, 윤채영, 2017).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부모-자녀 및 부부, 장애아동-부모-비장애형제자매와 같이 혼합된 형태의 구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모-자녀, 부부 마지막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순으로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 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임정희, 2020).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김은혜(2011), 김진희(2012), 홍화진, 정대영(2012), 조은별(2017)의 연구에 따르면 비장애 형제자매 아동이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 증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비장애 형제자매 아동들의 심리적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는 못하였다(김진희, 2012; 조은별, 2017). 아동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표현력이나 어휘력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온전하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우 비장애 형제자매가 일방적으로 장애인 형제를 돌보거나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혜연, 2015). 비장애 형제자매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과한 부담감과 책임감, 인내심, 압박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서 어른아이가 된다(김영숙, 2001). 부모로부터 강한 책임감 및 배려심과 같은 어른스러운 행동을 기대 받으며 자란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의 관심이나 보살핌이 장애인 형제에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속상한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정서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이미숙, 권희연, 2009).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 감정의 억압이 단순 스트레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 개념의 형성을 방해하여 자신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의 결

핍으로 공감능력을 떨어트린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하창순, 박주하, 2012).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로 보낸 후 성인이 된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기법 가운데 예술을 매개체로 한 예술심리치료가 있다. 예술심리치료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적인 상담 접근 보다 치료의 효과성이 훨씬 높다(강경숙, 한소희, 2008; 송수경, 2014; 최태산, 조정숙, 2016). 강경선(2011)에 따르면 내면세계의 표현도구로서 언어가 지닌 불완전성을 보충할 수 있는 소통도구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여러 가지 예술심리치료 중에서 특히 음악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이며 순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심리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곽현주, 김영희, 2012). 그러므로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자기표현을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Baker, Wigram, 2005). 다양한 정서적 표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면서 비구조화 되어 있는 즉흥연주보다 감정의 표현과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치료 목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문지영, 2007). Unkefer(2005)에 따르면 가사를 쓰는 경험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대상자들의 언어적 표현을 돕고 언어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내담자가 창작한 가사의 의미와 가사에 담긴 감정을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내재화 되어 있는 감정과 이슈들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다.

김진(2010)은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한 결과 세월, 인생의 무게, 희망, 꿈과 같은 주제를, Fiore(2016)은 가족과 사별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룹 송라이팅 활동을 통해 기억, 감정 연결, 상실에 대한 적응, 관계의 가치 등의 주제를 도출해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가사 만들기 활동이 내담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표출하는데 효과적인 중재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가사와 음악을 매치하여 현존하는 대중가요를 개사하는 데에 그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폭이 좁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자매가 직접 작곡에 참여하고 가사를 써서 곡을 완성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 화성의 틀을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노래 만들기 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심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과 가사 내용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가사를 내용분석하는 것은 음악치료에서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로부터 공통적인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만든 노래 가사는 Roberts와 McFerran(2013)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심리적 이슈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작사한 가사 내용분석을 통해 그들이 어떤 심리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자매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창작한 가사에 나타난 내용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1) 형제자매의 관계

인간의 성격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하며, 가족관계의 경험은 적절한 인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문행(1994)에 따르면 가족은 신체적 공간과 심리적 정서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임과 동시에 자연적인 사회체계로써, 고유한 체계의 특성, 성장주기, 일련의 규칙, 고유한 역할기능, 특유의 의사소통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발달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체계이다. 최근 들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지만 현대화된 보편적 가족의 형태는 부모-자녀로 형성되어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면서, 매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로 이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호작용은 자아개념의 형성 및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영숙, 한진숙, 2003).

가족 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중 하나인 형제자매 관계는 인간이 평생을 통해 맺어 나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다(임미혜, 지연경, 2016).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것을 공유하고 경험하며, 함께 성장한다. 형제자매 관계는 사회성 기술의 발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학습·인지·성격 발달의 기반을 마련해준다(Pike & Dunn, 2005). Milevky(2005)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관계는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며, 상하 수직적인 관계 보다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다.

형제자매의 관계와 특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Orsmond, Kuo & Seltzer, 2009). 아동기의 형제자매는 매일 함께 붙어 있으며 서로의 친구로 우정, 경쟁심, 우애를 다지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배운다(Turnbull, Turnbull, Erwin, Soodak & Shogren, 2011). 또한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자아에 대한 인식, 집단적 소속감, 연대감 등을 획득하고 협동, 방어 등을 학습하기도 한다(박미진, 김광웅, 2002). 형제자매 관계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연스럽게 감소된다(김유리, 2015). 청년기와 성인기에는 취업 및 결혼 등의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집안의 경조사 등을 통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한다(Orsmond & Seltzer, 2007). 중·장년기가 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친밀해지고(White, 2001), 노년기에까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 개인의 삶의 안녕에 기여한다(조황숙, 조병은, 2000). 이와 같이 형제자매 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라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존재하지만 평생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생관계이다.

2) 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특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및 손상, 또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간적 능력이 약화·손실된 상태, 또는 이 모든 것이 통합된 형태를 말한다. 즉, 장애란 모든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다(이철수, 2009).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과 가족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Edwards, Higgins & Zmifewski,

2007). 장애인에게 나머지 가족원들이 긍정적 감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적응을 돕기 때문에,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자영, 2011).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임과 동시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인간은 이러한 가족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그러나 장애인의 가족들은 보편적인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나머지 가족원들이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로,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불안,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소진, 신체건강의 문제, 가족 상호작용의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Harvey, Burns, Fahy, Manley & Tattan, 2001). 또한 치료와 돌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장애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Awad & Voruganti, 2008).

가족 내에서도 형제자매의 관계는 서로 간의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어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역경에 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되고 위안처로서의 역할을 한다(Gass, Jenkins&Dunn, 2007).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자매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자매는 보편적인 정서적 교감이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형제자매의 장애는 생애주기에 따라 친밀성과 심리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Turnbull, Turnbull, Erwin&Shogren, 2015).

보편적으로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인 형제가 없는 사람들 보다 책임감이 높지만, 자신감은 낮고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난다(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그 원인으로 부경희와 이성규(2013)는 가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형제와 다른 차별대우를 받고, 개인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방해를 받는 경

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며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홀로서기에 익숙해진 어른아이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이재령, 2011).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또래에 비해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예의바르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과 인내,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은 성향을 나타낸다(구정아, 김수현, 이숙향, 2014).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아동기, 학령기에 어른아이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면서 장애인 형제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반복적 책임감이 형성되고, 이 책임감이 과도해지는 과정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상실하는 경험을 한다(김다혜, 한재희, 2016).

2. 치료적 노래 만들기

1) 노래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노래는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여 본인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자기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데에 용이하다(정현주, 2005). 이처럼 노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준다. 인간은 이별을 하고 난 뒤 이별의 노래를 듣고, 좌절과 실패를 겪었을 때는 위로의 노래를 듣는다. 그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듣는 음악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하나의 자기표현인 것이다.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가 수동적인 자기표현이라면, 직접 음악을 창작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기표현이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음악을 경험한 내담자는 성취감과 자긍심 향상에 관련하여 보다 쉽게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Osweiler, 1998). 노래와 같은 예술을 통한 소망충족은 억눌려있던 자아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적 치료효과와 함께 현실이 가져다준 절망으로부터 심리적 보상을 제공한다(강경선, 2011). 치료 상황 안에서 노래를 만드는 것은 내담자가 어떠한 치료적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은 이미 존재하는 기성곡의 가사를 바꾸는 방법과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여 가사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에는 기성곡을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음악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노래 만들기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퍼포먼스 유형과 직접 녹음하고 편곡하는 레코딩 유형이 있다(Baker, Wigram, 2005).

2) 치료에서 창조적 활동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인간의 심리와 의사소통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 치료사와 함께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Baker & Wigram, 2005). 또한 기존에 있는 곡의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 합주의 리듬 및 화성을 창작하거나 가사를 개사하고, 음악의 형식을 확장하여 연주하는 재창조 과정이기도 하다(최병철, 2015). 이러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심리적 해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구윤경, 2017).

치료적 노래 만들기 과정은 단순히 음악에 관한 토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적으로 노래를 녹음하는 행위까지 여러 단계로 분류 한다. 내담자의 인지 수준, 취향이나 반응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다양한 방법의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내담자의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다양한 감정들의 깊은 탐구를 가져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adsell, 2003). 내담자는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탐색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정현정, 2009). 특히, 개인이 직접 가사를 만드는 과정은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노래를 하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이슈를 표출하게 한다.

Baker와 Wigram(2005)은 치료에서의 노래 만들기를 위한 유연한 접근법(Flexible Approach to Songwriting in Therapy:FAST)을 총 6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는 논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가사 창작 기법 및 음악 창작 기법과 함께 노래 만들기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1단계는 ‘노래 만들기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창작을 즉흥연주/노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

의하는 과정에서 치료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후에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2단계는 ‘가사의 구성’이다.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즉석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제시한다. 혹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미리 가사를 만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다음 3단계는 ‘음악의 구성’으로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 치료사와 내담자가 즉흥연주로 만들거나 구조화된 화음 구성에 맞춰 멜로디를 즉흥으로 만든다. 내담자가 직접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사가 부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멜로디, 화음, 코드 등을 제안한다. 이때 내담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하여 곡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치료사가 내담자의 가사에 알맞은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 4단계는 ‘노래 기보하기’이다. 가사만 적거나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적기도 하며 가사, 멜로디, 코드를 적는다. 이러한 작곡 활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가사, 멜로디, 화음, 반주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로 기보한다.

다음 5단계는 ‘노래의 연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는 1-4단계를 거쳐 완성된 노래를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 연주한다. 두 번째는 타인이나 가족 앞에서 연주하기도 한다. 마지막 6단계는 ‘노래의 녹음’인데 함께 만든 노래를 직접 녹음하거나 편곡하여 전문적인 녹음을 하기도 한다.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은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수정·추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은 구조화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언어화, 문자화, 음악화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 깊이 있는 심리적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오선화, 문지영, 2019).

노래 가사를 창작하는 것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의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감정과 주제, 회상, 현실 등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Bruscia, 1998/2007). 음악

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치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사의 심리적 표현을 향상시키고,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치료 과정과 결과를 증진시킨다(Baker, 2015).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정현주, 2005), 이를 통해 인간이 가진 심리적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Roberts, 2006). 비유나 상징과 같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 내적 문제와 타인과의 관계적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다(Baker & McDonald, 2014).

3)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에서의 선행연구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문지영, 2007; Baker&Wigram,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도 다양하다. 노윤기와 강경선(2020)은 랩을 활용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청년 헤어 미용 종사자들이 어떻게 감정노동을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사용하였고, 그들이 감정노동과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자량(2017)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Fairchild와 McFerran(2019)는 가정폭력과 노숙에 노출된 아동이 삶에서 겪을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기 위해 활용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의 삶에서 음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윤다솔과 순진이(2016)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고, 이나경(2011)은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의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턴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 성장을 성취하도록 하였다(박찬양, 김진아, 202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경험하도록 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표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 만들기 활동은 내담자가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창구이므로 음악이 충분한 동기부여에 의하여 진솔하게 연주되었을 때 치료적 가치와 효과를 갖는다(강경선,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온라인에 본 연구에 대해 공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최초 모집 인원은 5명이었으나 장기적으로 확산되는 COVID-19로 인하여 2명의 지원자가 불참석의사를 밝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기본 정보는 <표Ⅲ - 1>과 같다.

<표Ⅲ -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장애인 형제의 성별	장애인 형제의 나이	형제의 장애 등급
A	여	28	대학원생	대학교 졸업	남	23	발달장애 3급
B	여	26	활동보조사	대학교 졸업	남	24	발달장애 1급
C	여	25	회사원	대학교 졸업	남	23	발달장애 3급

2. 연구 설계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자 3-11곡의 노래 가사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Roberts와 McFerran(2013)이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코드(code)를 도출하였고, 요약된 코드를 범주화시킨 뒤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9월 2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주 1회 50분 활동으로 총 9회기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Baker와 Wigram(2006)이 제안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 곡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 면담을 실시한다. 세션의 구조는 인사노래로 시작하여 각 회기의 주제에 해당하는 노래감상 및 노래 부르기, 사진을 활용한 음악·가사 창작, 대상자의 기억·감정 나누기 등 노래 중심의 음악활동을 하고 헤어지는 노래를 부르는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 매 회기 세션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와 접근 방법은 <표Ⅲ - 2>과 같다.

<표Ⅲ - 2> 연구 절차

단계	회기	목표	접근방법
초기	1-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라포형성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함께 부르는 등의 음악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
중기	3-8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	각 회기별 구성내용에 따라 대상자들의 사진을 활용한 치료적 노래만들기 활동을 하고 당시에 느꼈던 경험 및 기억과 감정을 공유
종결	9	심리적 지지 및 종결	치료사와 감정공유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4. 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감정 표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는 노래 만들기의 소개, 가사의 구성, 음악의 구성, 노래 기보하기가 포함된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의 프로그램은 <표Ⅲ - 3>와 같다.

<표Ⅲ - 3>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활동 내용
초기	1	첫 인사 및 라포 형성	활동 소개 선호 음악 탐색 및 공유
	2	신뢰감 및 긍정적 관계 형성	음악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중기	3	자기 탐색	사진을 보며 당시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감정에 대해 표현하기
	4	과거와 관련된 이슈 표현 및 감정해소	
	5	자기 탐색	표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가사로 표현하기 멜로디 만들기
	6	현재와 관련된 이슈 표현 및 감정해소	
7	자기 탐색	미래에 겪게 될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감정에 대해 표현하기 표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가사로 표현하기 멜로디 만들기	
8	미래와 관련된 이슈 표현 및 감정해소		
종결	9	성공 및 성취 경험 개인적 성장 정서적 지지	만든 노래 감상 및 느낀 점 나누기

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구성되었고, ‘노래 만들기의 소개’, ‘가사의 구성’, ‘음악의 구성’, ‘노래를 기보하기’, ‘노래의 연주’ 단계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산문 형식으로 작성한 뒤, 치료사와 함께 음악을 만들며 가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회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회기에는 라포형성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부를 서로의 별칭을 정하고, 선호하는 음악의 장르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였다. 2회기에는 치료사와의 신뢰감과 내담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1회기에서 내담자들이 선호했던 곡을 다 함께 감상하고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와 4회기에는 장애인 형제자매와 유년시절 찍은 사진을 몇 장 가져와 그 당시에 형제자매에게 느낀 감정, 이슈에 대해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산문 형식의 글로 작성하고, 치료사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사를 수정하였다. 5회기와 6회기에는 성인이 된 후 장애인 형제자매와 찍은 사진을 보며, 현재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이슈에 대해 대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산문 형식의 글을 먼저 작성하고, 치료사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사를 수정하였다.

7회기와 8회기에는 장애인 형제자매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산문 형식의 글을 작성했다. 추후에 치료사와 함께 멜로디를 만들면서 가사를 수정하였다. 마지막 9회기에서는 함께 만든 노래를 감상하고 불러본 후에 어땠는지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타난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노래 가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Roberts와 McFerran(2013)이 사용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접근으로 연구자가 결과물로 나온 노래의 가사를 있는 그대로 읽어서 검토하고, 가사에서 느껴지는 첫 인상(First Impression)에 따라 표현하고 있는 중심생각(Key Thought)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표현된 중심생각 중 공통적이고 유사한 개념을 묶어 코드(Codes)를 도출하여 각 코드들을 다시 유사한 것 끼리 묶어 요약된 코드(Labelled Codes)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요약된 코드들이 의미하는 개념들에 따라 카테고리(Category)로 범주화하고 카테고리를 크게 주제(Theme)에 따라 분류하여 전체 가사 내용에 대한 의미구성을 한다. 양적 접근으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해 나온 가사를 있는 그대로 읽고, 단어에서 나타나는 단서를 찾아 글자 단위 분석(Word by Word Analysis)과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 Analysis)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의 단어나 문장을 각각의 카테고리에 매칭하여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장의 비율을 산출한다.

IV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에 의해 만들어진 총 19곡의 노래 가사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주제와 32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관계 역동’, ‘자아’, ‘형제와 나’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코드는 1개로 ‘기대/희망’이다. 부정적 감정에는 ‘자격지심’, ‘걱정/불안’, ‘막막함/두려움’, ‘분노’ 등을 포함한 8개이다. 관계 역동에는 ‘엄마에 대한 감정’, ‘엄마에 대한 바램’, ‘타인의 공격’ 등을 포함한 6개를, 자아에 해당되는 코드는 ‘어른아이의 모습’, ‘내가 보는 나’, ‘책임감’ 등을 포함한 8개이다. 형제와 나에 해당되는 코드는 9개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형제에 대한 양가감정’, ‘막연한 상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IV - 1> 주제별 분류 코드

	주제	코드
1	긍정적 감정	·기대/희망
2	부정적 감정	·속상함/우울함 ·분노 ·걱정/불안 ·답답함/불편함 ·막막함/두려움 ·자격지심 ·힘듦/어려움 ·비참함/창피함

3	관계 역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른들에 대한 감정 ·어른들의 요구 ·엄마에 대한 바람 ·엄마에 대한 감정 ·타인의 공격 ·타인에 대한 불신
<hr/>		
4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른아이의 모습 ·인내심/노력 ·회피/합리화 ·체념 ·자기주문 ·죄책감 ·책임감 ·내가 보는 나
<hr/>		
5	형제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에 대한 이해 ·내가 보는 형제의 모습 ·형제에게 바라는 것 ·과거의 기억 ·미래의 우리 ·의사소통의 어려움 ·알 수 없는 감정선 ·형제에 대한 양가감정 ·막연한 상상

<표Ⅳ - 2> 주제별 분류

	주제	가사 수	전체 가사 대비 비율(%)
1	긍정적 감정	6	3.4
2	부정적 감정	42	23.6
3	관계 역동	22	12.3
4	자아	44	24.7
5	형제와 나	64	36.0

<표Ⅳ - 3> 주제/테마 분류

	주제별 코드	가사 수	전체 가사 대비 비율(%)
1	긍정적 감정	6	3.4
	1) 기대/희망	6	3.4
2	부정적 감정	42	23.6
	2) 속상함/우울함	5	2.8
	3) 분노	3	1.8
	4) 걱정/불안	12	6.7
	5) 답답함/불편함	5	2.8
	6) 막막함/두려움	7	3.9
	7) 자격지심	2	1.1
	8) 힘듦/어려움	6	3.4
	9) 비참함/창피함	2	1.1

	관계 역동	22	12.3
	10) 어른들에 대한 감정	1	0.5
	11) 어른들의 요구	2	1.1
3	12) 엄마에 대한 바람	2	1.1
	13) 엄마에 대한 감정	5	2.8
	14) 타인의 공격	10	5.7
	15) 타인에 대한 불신	2	1.1
	자아	44	24.7
	16) 어른아이의 모습	4	2.2
	17) 인내심/노력	4	2.2
	18) 회피/합리화	10	5.7
4	19) 체념	5	2.8
	20) 자기주문	2	1.1
	21) 죄책감	3	1.8
	22) 책임감	12	6.7
	23) 내가 보는 나	4	2.2
	형제와 나	64	36.0
	24) 형제에 대한 이해	3	1.8
	25) 내가 보는 형제의 모습	15	8.4
	26) 형제에게 바라는 것	5	2.8
5	27) 과거의 기억	9	5.0
	28) 미래의 우리	14	7.9
	29) 의사소통의 어려움	3	1.8
	30) 알 수 없는 감정선	1	0.5
	31) 형제에 대한 양가감정	5	2.8
	32) 막연한 상상	9	5.0

내용분석으로 총 19곡의 노래 가사를 분석한 결과, 총 178개의 단어 및 문장이 도출되었다. 해당 가사를 분류 및 범주화한 내용은 <표IV - 3>에 요약되어 있다.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 및 문장의 수와 비율은 ‘긍정적 감정’($n = 6$, 3.4%), ‘부정적 감정’($n = 42$, 23.6%), ‘관계 역동’($n = 22$, 12.3%), ‘자아’($n = 44$, 24.7%), ‘형제와 나’($n = 64$, 36.0%)로 나타났다. 출현 가사의 수와 비율이 높은 주제는 ‘형제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자아’, ‘부정적 감정’, ‘관계 역동’ 순서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의 비중은 <그림IV -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IV - 1> 주제별 분포도

가사발췌: ‘긍정적 감정’ 예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든든한 느낌이 들 거야 - 1)

함께 앞으로 훌쩍 앞으로 나아가자 - 1)

잘 할 수 있어 - 1)

연구 참여자들이 만든 각 곡의 세부적인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

의 주제가 나타난 가사의 예시이다. 앞의 예시는 표IV-3에서 1) 번 코드인 ‘기대/희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가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본인이 훗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장애인 형제에게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느낌이 들 거야’라고 기대감을 갖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기대/희망’ 코드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잘 할 수 있어’와 같은 가사를 통해 장애인 형제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표현했기에 <표IV - 3>에서 1) 코드인 ‘기대/희망’에 포함하였다.

가사발췌: ‘부정적 감정’ 예시

- 불안한 마음이 문득 생겨나 - 4)
- 너가 홀로 집에 있는 것 - 4)
-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겠지 - 6)
-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 - 6)
- 이젠 너무 힘들어 - 8)
- 나의 분노는 펄펄 끓어올라서 그들을 향했어 - 3)

다음으로 제시한 가사는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 가사의 예시이다. 첫 번째 줄의 가사를 살펴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가감 없이 표현하였고 두 번째 줄의 가사는 장애인 형제가 집에 ‘홀로’있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기에 <표IV - 3>에서 4) 번 ‘걱정/불안’ 코드에 분류하였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예시를 보면, 미래에 장애인 형제와 단 둘이 남겨졌을 때를 생각하면 ‘주저앉겠지’, ‘어떻게 해야 해’하며 막막해하는 내용에 해당되기에 코드 6) 번에 ‘막막함/두려움’에 포함하였다. 다섯 번째 줄의 내용은 장애인 형제를 돌보는 일에 지쳐 힘들다는 내용에 해당하기에 코드 8) 번 ‘힘듦/어려움’에, 마

지막 줄은 장애인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타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기에 3) 번 코드 ‘분노’에 분류하였다.

가사발췌: ‘관계 역동’ 예시

미안한 마음 - 13)

화가 나서 타박해도 - 13)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 10)

그 따가운 시선들 - 10)

남들은 상처만 주려고 해 -10

엄마의 애정 엄마의 관심 사랑 - 12)

앞의 가사는 ‘관계 역동’ 주제에 해당하는 가사 예시이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가족 구성원 중 엄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첫 번째 줄은 엄마가 장애인 형제를 돌봄으로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두 번째 줄은 장애인 형제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돌아온 엄마에게 ‘화를 내고 타박’한 경험을 표현했으므로 <표IV - 3>에서 13) 코드 ‘엄마에 대한 감정’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살펴보면, 타인들이 장애인 형제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기에 10) 번 ‘타인의 공격’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 줄은 연구 참여자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12) 번 코드 ‘엄마에 대한 바람’에 분류하였다.

가사발췌: ‘자아’ 예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줄 거야 - 21)

혼자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 21)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었지 - 16)

나는 홀로 남아 이겨내야 했어 - 16)

듣기 싫었어 - 18)

도망치듯이 나와 버렸어 - 18)

앞의 가사 예시는 ‘자아’에 포함되는 가사 예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살펴보면, 장애인 형제를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라고 표현하며 보호와 돌봄에 대해 다짐하는 표현이기에 21)번 코드 ‘책임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보호자 없이 혼자 힘든 상황을 회상한 것이므로 22) 번 코드 ‘어른아이의 모습’으로 분류 하였다.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은 <표IV - 3>에서 18) 번 코드 ‘회피/합리화’에 포함하였는데, 타인이 장애인 형제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고 그런 내용을 ‘듣기 싫다’, ‘도망치듯이’ 피해버린 상황을 표현하므로 24) 번 코드 ‘회피/합리화’에 포함하였다.

가사발췌: ‘형제와 나’ 예시

퇴근 후 모두 모여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 - 32)

우리 각자 그렇게 맛있게 먹어보자 - 32)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 29)

함께 하면 힘들고 멀어지면 보고픈 멀고도 가까운 존재 - 31)

언젠가 일어날 일인걸 - 28)

너와 나만 남게 될 그날 - 28)

앞의 가사는 마지막 주제 ‘형제와 나’에 해당되는 가사의 예시이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형제자매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32) 번 코드 ‘막연한 상상’에 분류하였다. 세 번째 줄은 연구 참여자 본인이 장애인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내용으로 29) 번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포함하였다. 네 번째 줄을 보면, ‘함께하면 힘들고 멀어지면 보고픈’ 존재라고 표현함으로써 31) 코드 ‘형제에 대한 양가감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을 살펴보면, 미래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표IV - 3>에서 28) 번 ‘미래의 우리’에 분류하였다.

<그림IV - 2> ‘부정적 감정’의 하위 분포도 <그림IV - 3> ‘관계 역동’의 하위 분포도

코드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드는 ‘내가 보는 형제

의 모습'(n = 15, 8.4%), '미래의 우리'(n = 14, 7.9%), '걱정/불안'(n = 12, 6.7%)과 '책임감'(n = 12, 6.7%), '타인의 공격'(n = 10, 5.7)과 '회피/합리화'(n = 10, 5.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주제 안의 하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감정'은 하위 코드가 1개이기 때문에 '기대/희망'이 100%를 차지한다. <그림Ⅳ - 2>의 '부정적 감정'의 하위 분포도를 보면, '걱정/불안' 28.6%, '막막함/두려움' 16.7%, '힘듦/어려움' 14.2%, '속상함/우울함'과 '답답함/불편함' 11.9% 순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Ⅳ - 3>에 해당되는 '관계 역동'의 하위 분포도에서는 '타인의 공격'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엄마에 대한 감정' 22.7%, '타인에 대한 불신', '어른들의 요구', '엄마에 대한 바램' 9.1% 순서로 뒤를 이었다.

'자아'의 하위 분포도 <그림Ⅳ - 4>를 살펴보면 '책임감'이 2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피/합리화' 22.7%, '체념' 11.4%, '어른아이의 모습', '인내심/노력', '내가 보는 나' 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 - 4> '자아'의 하위 분포도

<그림Ⅳ - 5> '형제와 나'의 하위 분포도

<그림Ⅳ - 5>에 해당하는 ‘형제와 나’의 하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내가 보는 형제의 모습’이 23.4%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미래의 우리’ 21.9%, ‘막연한 상상’과 ‘과거의 기억’이 14.1%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심리적 이슈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만든 노래 가사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가사 내용의 맥락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창작된 모든 노래 가사는 연구자의 심층적 통찰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발달 장애인 형제를 둔 청년기 비장애인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직접 작곡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가사를 적는 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장애인 형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말없이 맞장구만 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좋아하는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감상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형제라는 공통점을 가진 집단원 간에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이슈와 감정을 짧은 산문 형식으로 먼저 작성하고, 다음으로 곡을 만들어 운율에 맞는 가사로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창작한 총 19개의 곡에서 도출된 178개의 가사 중 ‘형제와 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도출되었고 이와 관련된 가사는 전체 가사 중 36.0%에 달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자아’와 관련한 주제로 24.7%의 비율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감정'이 23.6%로 나타났고 '관계 역동'은 12.3%, 마지막으로 '긍정적 감정'은 3.4%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가사내용 분석에 의하면,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형제와 나와의 관계, 자아와 부정적 감정, 타인과의 관계 역동에 관련한 이슈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가 보는 형제의 모습'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남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하는 형제의 모습과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의 우리', '걱정/불안', '책임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래에 부모님 없이 장애인 형제와 남겨질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계획해야 하지만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서기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걱정과 불안함과 비례하여 책임감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부터 큰아이로 자라온 비장애 형제자매는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역동과 관련한 주제 속 가사를 보면, 아동기와 학령기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인들이 장애인 형제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에게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비장애 형제자매는 속상함과 우울한 감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렸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을 회상할 때에는 큰 분노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비슷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겪어 오며 생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내면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과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에 억눌려 긍정적인 감정 및 생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창작한 가사에 나타난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심리적 이슈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사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곡을 선호하였다. 노래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곡을 만들 때 치료사가 다양한 화성진행을 예시로 들려주고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장조와 단조 중 장조 화성진행을 선택하고, 밝은 멜로디를 창작하여 모든 곡이 장조로 구성되었다. 가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고 곡은 상반된 분위기로 창작된 것이다. 이는 가사로 표현하지 못한 긍정적인 감정을 음악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 연구자는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창작한 가사 내용을 통해 단어 및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주제별로 나누고 코드화 하여 그들이 어떤 심리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가사 내용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가 반영된 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내담자의 감정과 심리를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 3명 모두 20대 여성임과 동시에 장애인 형제의 손윗사람으로 구성되었다. 20대가 아닌 다른 연령이거나 여성이 아닌 남성, 혹은 장애인 형제의 손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었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형제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여타 다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들의

감정이나 심리적 이슈를 다루지 못한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음악치료에서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내담자가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서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Derrington, 2005). 이러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해서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자신의 심리적 이슈를 탐색하고 돌아보게 된다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선 (2011).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7(3), 21-37.
- 강경선 (2012). 정신재활 회원을 위한 음악치료 임상실습에서의 동기부여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9(1), 37-53.
- 강경숙, 한소희 (2008).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고립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189-217
-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http://www.gn.dfsc.or.kr/> (2020년 09월 26일)
- 곽현주, 김영희 (2012). DBT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2), 173-195
- 구윤경 (2017).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소아암 생존 아동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구정아, 김수현, 이숙향 (2014).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는 비장애인 특수교육 전공자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및 지원 요구 고찰. **지적장애연구**, 16(2), 253-283.
- 권자영 (2011).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가 지각한 관계가 재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5(3), 317-344.
- 권희연, 전병운, 이진아, 김형준, 정환별, 양승창 (2010).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이 비장애 형제자매의 대처,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2), 147-171.
- 김경은 (2005). **Rhythmic Group Activity 원리를 적용한 무용/동작치료가 ADHD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교.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동호 (2012. 02. 02). 「‘애처로운 형제’ 40대男 장애인 동생과 자살」.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494516>
- 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부양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63-89.
- 김영숙 (2001).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장애아와 비장애 형제자매관계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찰. **지적장애연구**, 3, 145-159.
- 김유리 (2015).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지적장애연구**, 17(2), 275-298

- 김은실, 이미경 (2006). 장애아동 형제지원 캠프 참가경험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개념 및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特殊教育要求 兒童研究**, 17, 89-108
- 김은혜 (2011). **관계증진을 위한 음악치료에서 장애아의 비장애 동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 (2010).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가사분석(Lyric Analysis) 활동을 통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2), 23-45.
- 김진희 (2012). **장애 아동을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감정표현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노민희, 김은경 (2018).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성인 형제자매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자폐성 장애연구**, 18(1), 1-33
- 노윤기, 강경선 (2020).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랩 가사 내용 분석 연구 : 청년 헤어 미용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6(3), 1-18.
- 문영숙, 한진숙 (2003).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건강학회지**, 6(2), 93-102.
- 문자랑 (2017).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이용한 음악치료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지영 (2007). 분열정동형 장애를 가진 성인과의 송라이팅을 통한 표현적·지지적 음악 심리치료.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1), 77-91.
- 박미진, 김광웅 (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아동연구**, 15(2), 79-105.
- 박찬양, 김진아 (2020).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1-2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020년 09월 28일)
- 부경희, 이성규 (2013).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와 형제관계만족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55-83.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http://www.seoul.dfsc.or.kr/> (2020년 09월 25일)
- 세계보건기구. <https://www.who.int/> (2020년 09월 30일)
- 송수경 (2014). 청소년 대상 예술치료 연구 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155-179
- 송정애 (2010). **가족복지론**. 경기; 양서원.
- 엄진명, 전해인 (2014). 장애아동의 손아래 형제자매가 지닌 장애인관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 13(1), 5-27
- 오선화, 문지영 (2019).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래 만들기에서 도출된 노래가사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71-93

-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형제의 상담연구동향 분석: 1999-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2), 199-220.
- 이나경 (2011).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8(2), 21-46.
- 이문행 (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권희연 (2009).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긍정적 적응 및 발달을 위한 방안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5(1), 141-163.
- 이보희 (2020. 09. 09). 「“가슴아프다” 17년 간병한 장애인 형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691>
- 이영미 (2015). 장애인 형제자매의 스트레스와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 39-59
- 이영미 (2016). 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4), 327-346
- 이재령 (2011). **지적장애인의 비장애형제자매의 성장기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진화, 김윤주 (2014).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사이버교육연구**, 8(1), 52-68.
- 이혜연 (2015). 장애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2(1), 17-37.
-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Blue Fish
- 임미혜, 지연경 (2016). 성인기 발달단계에 따른 형제자매의 온정성과 갈등. **가족과 문화**, 28(4), 30-56.
- 임정희 (2020).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장미희, 최영 (2011). 가족탄력성이 성인 발달 장애인 형제자매의 관여에 미치는 영향. **社會科學研究**, 27(4), 1-24
- 장아름 (2016. 09. 05). 「장애인 형 부양문제로 다투다 아파트 불낸 40대 검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5032600054?input=1195m>
- 정보경, 윤명숙 (2013). 중장년기 정신장애인의 형제자매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22, 85-108
- 정현주 외 공저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발달장애를 지닌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비장애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 **통합교육연구**, 14(2), 151-170.

- 조은별 (2017). **피아노듀오중심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아동의 형제관계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조황숙, 조병은 (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 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2), 197-213.
- 최병철 외 공저 (2017).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복천, 김유리 (2018). 성인기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형제관계 및 그 의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1(2), 159-183
- 최태산, 조정숙 (2016). 화재 외상 피해자의 무용/동작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1), 293-314
- 하창순, 박주하 (2012). 정서표현갈등과 대인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인간연구**, (22), 173-198.
- 홍화진, 정대영 (2012).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29-62.
- Alper, S. K., Schloss, P. J., & Schloss, C. N. (Eds.). (1994).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nsultation and advocacy*. Pearson College Division.
- Awad, A. G., & Voruganti, L. N. (2008). The burden of schizophrenia on caregivers. *Pharmacoeconomics*, 26(2), 149-162.
- Baker, F., & Wigram, T. (2005).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ker, F. A., & MacDonald, R. A. (2014). Experiences of creating personally meaningful songs within a therapeutic context. *Arts & Health*, 6(2), 143-161.
- Baker, F. A. (2015). What about the music? Music therapist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music in the therapeutic songwriting process. *Psychology of Music*, 43(1), 122-13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uscia, K. E.(2007). **The Dynamics of Music Therapy**. 최병철, 김영신(역).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Derrington, P. (2005). Teenagers and songwriting: Supporting students in a mainstream secondary school.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 Edwards, B., Higgins, D. J., & Zmijewski, N. (2007). The Families Caring for a

- Person with a Disability Study and the social lives of carers. *Family Matters*, (76), 8.
- Fairchild, R., & McFerran, K. S. (2019). "Music is everything": Using collaborative group songwriting as an arts-based method with children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family violenc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8(2), 88-107.
- Fiore, J. (2016). Analysis of lyrics from group songwriting with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53(3), 207-231.
- Gass, K., Jenkins, J., & Dunn, J. (2007). Are sibling relationships protectiv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2), 167-175.
- Harvey, K., Burns, T., Fahy, T., Manley, C., & Tattan, T. (2001). Relatives of patients with severe psychotic illness: factors that influence appraisal of caregiv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9), 456-461.
- Milevsky, A. (2005). Compensatory patterns of sibling support in emerging adulthood: Variations in loneli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6), 743-755.
- Murphy, A. T. (1979). Members of the Family: Sisters and Br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Volta Review*, 81(5), 352-62.
- Orsmond, G. I., Kuo, H. Y., & Seltzer, M. M. (2009).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Sibling relationships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utism*, 13(1), 59-80.
- Orsmond, G. I., & Seltzer, M. M. (2007).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autism or Down syndrome: Effects on adult liv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9), 682-696.
- Oswelier, M. E. (1998). *The use of music therapy techniques to help individuals cope with psychosocial aspects of epilepsy: Three case studie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Pike, A., Coldwell, J., & Dunn, J. F. (2005).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middle childhood: links with individu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4), 523.
- Roberts, M. (2006). 'I Want to Play and Sing My Story': Home-based Songwriting for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17, 18.

- Roberts, M. & McFerran, K. (2013). A mixed methods analysis of songs written by bereaved preadolescents in individual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50*(1), 25-52.
- Strom, K. (2009).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전혜인, 전평강(역). **장애아의 형제자매**. 서울:한울림스페셜. (원서 출판 2005)
- Turnbull, A. P., Turnbull, R., Erwin, E. J., Soodak, L. C., & Shogren, K. A. (2011).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Positive outcomes through partnerships and trust*.
- Turnbull, A., Turnbull, H. R., Erwin, E. J., & Shogren, K. A. (2015).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Positive Outcomes Through Partnerships and Trust*.
- Unkefer, R. F. (2005).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Theoretical Bases and Clinical Interventions*.
- White, L. (2001). Sibling relationships over the life course: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555-568.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Analysis of Lyrics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for the Non-Disabled Siblings of the Disabled

Hong, Simg Eu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issues and contents of the non-disabled siblings of the disabled through therapeutic song writing. Participants in the study are non-disabled in their youth, who have siblings of grades 1 to 3,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utism). The therapeutic song writing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50 minutes, from September 2 to November 4, 2020, for total of 9 sessions. The research data is the lyrics of 19 songs written by the non-disabled siblings of the disabled that they made their own music and wrote lyrics in connection with their own issues.

The therapeutic song writing procedure was carried out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models of Baker and Wigram (2006), and the song lyr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ubject analysis process of Braun and Clarke (2006). From a total of 19 songs, five themes and 32 codes, 178 words and sentences were derived.

Themes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feelings', 'negative feelings', 'relationship dynamics', 'self' and 'brother and me'. Positive emotions include expectations and hopes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act on

disabled siblings. "Negative feelings" are composed of various negative expressions caused by events experienced by the disabled's non-disabled siblings and anxiety about the future. In addition to disabled siblings, "relationship dynamics" includes content on relationships and conflicts with family members or others, while "self" includes content that shows one's internal conflicts and psychological status related to disabled siblings. Finally, 'Sibling and I' was classified solely as an exp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siblings and themselves.

As a result of the contents analysis of lyrics, the non-disabled siblings of the disabled expressed various and specific expressions about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isabled brothers the most, followed by a high percentage of expressions related to themselves. The third highest percentage of lyrics about negative emotions caused by brothers with disabilities was followed by dynamic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positive emotions. Among them, the non-disabled siblings of the disabled are the biggest issues of concern and anxiety about their future lives and relationships with the disabled brothers.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while psychologically burdened with respect to the future, the responsibility is also very lar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uld serve as a basi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non-disabled siblings for the disabled and for lyrics content analysis studies to be undertaken in the future.

부 록

- <부록 1> 연구 참여자 A의 가사
- <부록 2> 연구 참여자 B의 가사
- <부록 3> 연구 참여자 C의 가사

<부록 1> 연구 참여자 A의 가사

왜

어린 시절에 이미 동생이 남들과 다른 걸 알았지
그렇기에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었지
좋아하려고 잘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는데
어른들은 그런 날 몰라주고 엄마를 도우라고 해
동생만 신경 쓰는 어른들 나도 어린데 왜 도와야 해
쌓이고 쌓여 미움이 커지네 다 크고 나서
나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마음이 힘들어도 신경 쓰지 마

episode

가끔씩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지난 이야기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인데 항상 을이 되는 우리
화가 나서 타박해도 알고 있어 정말 나쁜 건
함부로 판단하고 내뱉는 사람들인 걸 알아
마음 약해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줄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문득 생겨나
가끔씩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지난 이야기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인데 항상 을이 되는 우리

알 듯 말 듯

오늘도 화를 내고 아무리 설명해도 넌 듣지를 않아 왜 그래
나는 답답해지고 화가 나도 참아본다 금방 기분 풀리는 너
좋아하는 게임 얘기를 해 오르락내리락 감정선에 맞춰
집으로 함께 향한다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되지 않기도 해
오늘도 이렇게 또 그대로 넘어간다 언젠간 너도 날 이해하길

언젠가

온전히 우리만 남겨진다면 벌써 막막한 기분이 들어
언젠가 일어날 일인 걸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이 된다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겠지 생각을 해
막연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할 뿐
나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나는 더 이겨내야 한다
퇴근 후 모여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

if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든든한 느낌이 들 거야
어쩌면 자격지심에 그 사람 눈치를 볼까
아무리 약속했어도 시간 흐르면 바래질 텐데 그 약속
믿어도 될까? 그 사람 먼 미래에 그럼 그렇지
똑같은 결말이라고 해도 그 행복을 놓치기 싫어
나는 모른 척 눈 감고 걸어가려고 하겠지
모른 척 그렇게

<부록 2> 연구 참여자 B의 가사

아이들의 지독한 행진

우리 함께 한 시간 달라도 언제 또 어디서든
우린 또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 언제쯤 너와
편하고 여유롭게 걸어볼 수 있을까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그곳 어딘가로
넌 나의 아픈 손가락 또 다른 나의 희망이었지
그런 설렘 기대와 희망 말이야 간직하고파
다리를 다친 사람이 눈먼 사람에게 업혀서
길을 안내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앞으로 훌쩍 앞으로 나아가자

우린 아직 더 자라야 하나 봐

아주 어릴 적 늘 자유롭게 항상 달리던 너
우리는 그런 너를 제어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
타인들에게 고통 주기 싫어 많이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런 너를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어
‘너 아픈척하지 마라, 너 그렇게 뛰지 마라’
‘너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들의 분노는 더 날카롭게 너를 향했었고
나의 분노는 펄펄 끓어올라서 그들을 향했어

나도 필요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도 필요했어
엄마의 애정 엄마의 관심 사랑 그러나 내게
주어진 애정과 관심은 아주 짧고 짧은 시간이었어
나 그럴 자격 충분하지 않나
속상하고 우울했어 나는 홀로 남아 이겨내야 했어
그런데도 미워할 수 없었어 엄마도 너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도 필요했어
엄마의 애정 엄마의 관심 사랑 지금도 필요해

도망 그리고 후회

우리 어릴 때 함께 식당에 들어선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 그 따가운 시선들 소리 지르는 너
그 따갑고 매서운 시선 그때 나는 나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비참했었어 너가 창피했어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대로 울고만 싶었어
결국 너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이 나와 버렸어
그때의 나는 너에게 한참 짜증을 내버렸어
지금의 나는 네게 화를 냈던 내가 실망스러워

지금은 안드로메다행

있잖아 나는 말야 너와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싶어
하지만 너는 말야 항상 돌아다니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졸졸 쫓아다니며 너에게 한입만을 구걸하고 있어
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넌 아무 데나 뺄고
난 그럼 입맛이 떨어져
나는 내 밥을 먹고 넌 너의 밥을 먹고 각자 맛있게 먹자
우리 각자 그렇게 맛있게 먹어보자 그랬으면 소원이 없어

부탁해, 부탁해

넌 항상 무언가를 바르고 버리고 찢는 걸 참 좋아하지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데도 말이야 너가 버리는 게 불쌍해
그 소리가 좋아서 그 쾌감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알아
조금만 자제해 줘 조금만 항상 사고 치는 너의 뒤를
봐주고 정리하고 이젠 너무 힘들어 조금만 자제해 줘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을 다닐 때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쉽게 지쳐가
나는 너와 함께 그냥 즐기고 싶어 여행을 즐기고 싶어
그렇지만 너가 만들어낸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
나를 괴롭히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해 이 여행을 즐기고 싶어

천국과 지옥, 너와 나의 미래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겐 생명줄이고 너에겐 편안함을 줘 안락한 삶
정말 소중한니까 필요하니까 감당해야 해 모든 것을
난 아직 많이 부족해 어려운 현실 감당해야 해 내가
그래서 너와 나만 남게 될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워
나에겐 생명줄이고 너에겐 편안함을 줘 안락한 삶을

홀로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너가 홀로 집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어려운 너 그런 너는 항상 혼자 외롭겠지
아주 먼 미래에 너는 홀로 남겠지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너가 결국엔 돌아 갈까 봐 혼자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너가 홀로 집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어려운 너 그런 너는 항상 혼자 외로울 거야

상상해

아무도 없이 둘만이 남겨진 그날을 상상해
꿈에도 나오고는 해 아무리 상상해 봐도 모르겠어
아마 너도 그럴 거야 너와 나 둘만 남겨진다는 것 오직 둘만
아마 너는 이럴 거야 돌아 올 거라 생각하겠지 그래
하루 1년 10년 평생 동안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혹시 잊지 못할까 봐 삶의 의지를 놓을까 무섭고 겁나

갈림길

난 너와 평생 함께 하고파 너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쉽지가 않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언젠가는
우리 떨어지게 돼도 속상하다고 하지 말았음 좋겠어
너를 사랑해 줄 사람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
난 너와 평생 함께 하고파 너의 곁을 지키고 싶어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줄 거야

<부록 3> 연구 참여자 C의 가사

미안한 마음

알기 싫었어 듣기 싫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인데 내가 뭘 해야 할까
남들은 오해하고 말해 남들은 상처만 주려고 해
엄마에겐 이제는 일상이 되어 무뎠겠지
아들이 장애인이라 익숙해진 타인의 시선
엄마에겐 이제는 일상이 되어 무뎠겠지
알기 싫었어 듣기 싫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인데 내가 뭘 해야 할까

공존해야 하는, 하지만 공존할 수 없는

함께 하면 힘들고 멀어지면 보고픈 멀고도 가까운 존재
함께 하면 즐겁고 멀어지면 편해지는 가깝고도 먼 존재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
함께 하면 힘들고 멀어지면 보고픈 멀고도 가까운 존재
함께 하면 즐겁고 멀어지면 편해지는 가깝고도 먼 존재

혼자일 수 있도록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
너에게 다가올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어찌 될까
혼자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우리
혼자일 수 있도록 함께할 거야 함께할 거야 우리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는 혼자서 혼자서 잘 할 거야
너에게 다가올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잘할 수 있어